

# **.kr/.한국** 아래 한자혼용 도메인 이름의 허용에 관한 논의

전응준 (유미 법무법인 변호사)

[ejjeon@youme.com](mailto:ejjeon@youme.com)

2017. 9.15

# 논의의 시작

- TLD에서 한자 사용 이슈와 구별
  - IDN(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)차원에서 추진하는, 한자로 된 TLD(Top Level Domain)를 생성하는 국제적 이슈와 구별
  - .kr/.한국 아래에 한자 단독 또는 한자를 혼용하는 2단계/3단계 도메인이름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
  - 예 : 美術館.kr(O), 증권.會社(X)
  - .kr/.한국 ccTLD는 인터넷주소자원법과 국내 registry 의해 관리되므로, 사안 자체는 국내적 이슈임

# 논의의 시작

- 필요성의 제기

- 숫자, 해외 주소지에 대한 국내 도메인이름 등록 허용 이슈와 같은 맥락
- IDN 차원에서 진행되는 한자 TLD 생성 논의와 맞물려서 국내 ccTLD에서 2단계 한자도메인이름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 대두
  - IDN를 주관하는 ICANN의 IP(Integration Panel)의 태도 - 한자 TLD 논의에서 한국 한자의 repertoire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도메인에서 한자의 사용현황을 제출할 것
- 국내 Registrar 등의 도메인 산업적 이해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

# 찬반론

- 찬성론

- 이용자 선택권 보장(도메인의 공공성)
  - 우리사회에서 한자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도메인 이름에 반영(한자 상표, 상호)
  - 표현의 자유, 도메인에 대한 접근성
- 한자 도메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
  - ICANN의 LGR(Label Generation Rule)작업에서 한국이 한자 관련 이해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책논의에서 배제된다면, 향후 한자 TLD 등록시 중국, 일본에서 정의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문제 -이체자, 한국식 한자가 존재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글자가 발생할 수 있음
  - 향후 한자 관련 도메인 논의에서 한국의 참여권 보장

# 찬반론

- 반대론

- 2단계 한자 도메인에 대한 수요 부족
- Registrar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
  - 등록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자 전부가 한자(한글혼용) 도메인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
  - 등록대행자마다 시스템 구축 현황이 상이하므로, 한자 도메인 관련 시스템 구축비용이 300만원 ~ 1억원까지 다양하게 예측됨
  - 다만,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의 M/M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
- 정부시책인 한글전용정책과 배치(국어기본법)
  - 도메인 영역은 국어기본법의 대상이 아님
  - 이 문제는 정부가 국내 도메인 정책을 관장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임

# 검토

- 검토의 관점

- 이용자의 수요, 사업자의 비용, 정책적 의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야 함
- 이용자의 수요, 사업자의 비용의 관점
  - 현재 이용자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, 향후 한자 사용 실태를 단정하기 어려움
  - 사업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나, 정책적 필요성에 고려하면 부득이한 면이 있고 해결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임
  - 한글도메인, PE 도메인의 사례를 보면, 도메인정책은 시장의 수요, 비용의 측면보다는 도메인 선택의 기회 제공, 공공성 확보의 관점이 더 크다고 생각됨

# 검토

- 정책적 함의
  - 도메인 영역에서 이용자에게 한자 사용 기회를 제공
    - (상업적) 표현의 자유, 도메인 접근성 확대
  - 한자 도메인 관련 국제적 논의에서 한국의 참여권 보장
    - 2단계 한자 도메인을 허용하여 한자 TLD 논의에서 발언권(한국 한자의 repertoire) 확보
    - 현재 진행되는 한자 TLD 논의에서 배제되면 향후 규칙생성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움
  - 사업자 비용부담을 고려할 것

# 감사합니다!

변호사 전응준(ejjeon@youme.com)